

작은도서관 현장을 돌아보며



글 | 안인자
한국도서관협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동원대학 아동문학정보과 교수
ljahn@tw.ac.kr

‘2011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의 지자체 도시, G시, S시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전체, 총 115개관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방문 도서관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5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110개관이었다. 전체의 96%에 해당할 정도로 대부분은 사립 작은도서관이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공립과 사립은 다른 세계였다. 더욱이 최근 개관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공공도서관 분관으로서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너무도 다른 모습이 있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기관 혹은 소재지에 따라 대략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적으로 보면 새마을문고중앙회 소속 새마을문고,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회문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내에 설립된 아파트문고, 지역아동센터 내의 문고 순으로 많았다.

작은도서관의 예산은 매우 열악하다. 필자가 방문한 새마을문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연간 170만원, 230만원, 740만원의 지원을 받고, 아파트문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월20-5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용도는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운영비이다. 어느 도서관이건 인건비 지원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주민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서 나온다. 어떤 경우 본인이 먹을 도시락, 음료수까지 스스로 준비해 와서 도서관 봉사를 한다. 10-3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20-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기부한다.

자료구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지방자치단체 혹은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사용하며, 이 돈을 받아든 문고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나름대로 자료를 구입한다고 한다. 문고관리는 주부 혹은 경로당의 연로하신 노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가야할 텐데 시간이 없네요.’ 사은 책이 한 구석에 포장도 풀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는 경우도

“ 도움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 나아가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포용하여 도서관 전성기를 만들어가 할 것이다. ”

상당히 많았다. ‘책을 비치할 장소가 없다’, ‘있는 책이 많은데 버릴 수도 없다’, 돈을 받아든
경로당의 노인 한 분은 함께 책을 사러 갈 사람이 없어서 몇 달째 그대로 들고 있단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돈을 횡령했다고 비난을 해서 속상하다고 하셨다.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물었다.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2박3일의
교육을 받는데 이 때 받는 도서관 운영교육이 전부이다. 그런데 자료를 누가 어떻게 사고, 정리하
느냐, 대출하는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하고 물었다. 그곳에서 자료의 분류를 배웠다고 한
다. 그들은 분류의 백단위 색띠만을 붙여놓고, 자유로이 배열하고 있다. 등록순서대로 번호를 주
거나, 나름의 소신과 지식을 가지고 서가에 배가하였다. ‘단지 시간이 없어서 분류하지 못하고,
레이블을 붙이지 못하고 있지요’ 하며 사서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교회문고는 교회 내부의 문고공간에 들어서야 문고라는 현판이 보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30%는 되어 보인다. 교회 목사님 소유의 서가 3-4개가 교회문고인 경우도 많았다. 교회인데
왜 문고를 운영하느냐고 물었더니 문고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교회문
고 공간을 지키는 사람은 목사님이 상당수였다. 이용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실
비로 운영하는 분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등지를 튼 곳도 상당수 있었다. 아
동센터를 운영하는 담당 봉사자가 아동들에게 책을 읽히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고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원봉사자로서 주부, 노인, 교회의 담당자, 사회복지
사들이었다. 이들은 도서관을 운영함에도 사서의 업무를 몰라서 절실히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필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간 도서관수의 증가가 유사 이래 최대이며,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근대 도서관이 국내에 건립된 이후 최대의 황금
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비정규직의 양산, 부실한 작은도서관의 증가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
만 도서관인들은 지금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도약의 기회로 잡아야 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 나아가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포용하여 도서관전성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